

KANTAR

Kantar 73rd wave Intern newsletter

- | 칸타코리아를 소개합니다!
- | 인턴 입사기
- | 인턴의 하루
- | 전지적 인턴 시점 Q&A
- | 대표님 간담회 Overview
- | 좌담회 Overview
- | 칸타코리아 웨비나
- | 인턴 채용 시기 및 전형과정 소개



리셉션

사무실

칸타코리아를 소개합니다!

칸타는 세계 정상의 마케팅 데이터 & 애널리틱스 기업입니다.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약 3만명의 칸타 임직원은 오늘날 기업에게 필요한 민첩함과 규모로 고객사의 수요를 충족합니다. 칸타 임직원의 탁월한 전문성, 자체 보유한 데이터원과 벤치마크, 혁신적인 애널리틱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고객사가 사람을 이해하고 성장에 대한 영감을 얻도록 조력합니다. 칸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kantar.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담회실



VIP룸



인턴들의 자기소개

박세은: 안녕하세요, 저는 칸타코리아 마케팅조사사업부문 D-2팀 인턴 박세은입니다. 저는 73기 동기들 중 유일하게 졸업 후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당시에 저는 졸업을 앞둔 상태였고 때늦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거나 이미 졸업하신 미래 인턴분들의 심정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인턴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입사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람: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조사사업부문 S-2팀 인턴 이예람입니다. 현재 칸타코리아 마케팅 조사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보고서 영/한, 한/영 번역, 클라이언트 시장 조사 및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좌담회 진행 및 보조, 인터뷰 노트테이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실무 경험으로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며, 아일랜드 대학에서 마케팅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제 MBTI는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로, 밝은 성격의 사람이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즐겁습니다.

최가은: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조사사업부문 A-1팀 인턴 최가은입니다. 저는 소비자경제, 경영, 빅데이터 분석을 전공하고 있고, 미래에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을 융합할 수 있는 직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칸타코리아의 Insights팀에서 일하게 되어서 뜻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행복하고 재미있는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칸타코리아 인턴십 지원 동기가 궁금해요!

최가은: 저는 리서치업계의 타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저희 과 선배님이 직무설명회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참석하였고, 그 때부터 리서치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케팅 리서치가 제 성격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겨울 방학 때 칸타코리아의 SPRING 인턴십 공고를 확인하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동기들도 이 일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공고를 개인적으로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예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마케팅 경영을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 마케팅 회사에 인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케팅이 전문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독학으로 데이터 분석, 사회조사 공부를 했고 이 배경지식을 살려 '마케팅 리서치'라는 좀 더 전문성이 짙은 분야에 인턴을 찾던 중 칸타코리아를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 인턴활동에서 주로 했던 업무가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직무의 칸타코리아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 취업을 준비하는 제 친구들이 인턴 경험 한 번이 여러 차례의 대외활동보다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인턴십에 지원할 당시 '진짜' 마케팅 조사 직무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대학강의는 이론이나 과거 성공사례를 학습하는데 치중되어 있었고, 1년간 경영학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실현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칸타코리아의 인턴십 공고를 보았을 때 실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에 끌렸고, 마케팅 조사 직무를 생생하게 경험하겠다는 목표로 인턴십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인턴 지원 중 면접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을 텐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최가은: 같은 시간대에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 중 반은 면접을 먼저, 나머지 반은 번역시험을 먼저 보았습니다. 면접관 네 명과 지원자 다섯 명으로 구성된 다대다 면접으로, 모두 앉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전혀 딱딱하지 않아서 나름 떨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포함해 인당 4~5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소개서 기반 프로젝트 질문, 이력서 상의 전공 및 어학 성적 질문이 기억납니다. 특히 저에게는 전공을 3개나 선택한 계기를 여쭙보셨습니다.

이예람: 저는 다대다 면접은 처음이라 지금까지 해본 면접 중 제일 긴장되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면접 보는 지원자들이 많아 답변 시간은 1시간 중 15분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명의 지원자 중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으며 제 이야기를 구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면접보다는 번역 시험이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A4 1장을 가득 채운 광고 콘티를 한영 번역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설문지 영한 번역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주변 인턴들에게 물어봐도 어려웠다는 반응이었기에, 확실히 영어시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박세은: 맞아요! 저도 다른 지원자들이 받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 업무와 필요 역량을 유추하며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면접관 분들이 지원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사전에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준비한만큼 스스로를 보여주지 못해 아쉽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어 질문에 깔끔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었다더라면 더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인턴으로서 인턴 합격 팁 몇 가지 전해주세요!

최가은: 칸타코리아 인턴 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많이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은 무엇인지, 또 칸타코리아가 마케팅 리서치 인턴에게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재목을 붙였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설문지를 만들고 결과를 분석한 프로젝트를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 인턴 직무와 유사해 이 경험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여러 개 했지만, 마케팅 리서치 인턴이 직접 카드뉴스나 영상물을 제작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보다는 소비자 분석, 인사이트 도출 역량이 강조되는 교내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만큼 번역 업무 등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해외 체류경험이나 어학점수가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세은: 면접의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의 장점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해결능력, 성실함, 협업능력을 키워드로 제가 경험한 팀 프로젝트와 대외활동, 그리고 수상경력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적에서 강점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합격 연락을 받은 후에는, 제3자의 시선에서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며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할 중에 남겨놓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덕분에 그 시절의 기억을 환기할 수 있었고, 예상과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도 준비한 답변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시험을 위해 저는 대학에서 다뤘던 영어 리딩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영어 표현에 익숙해지는데 집중했습니다. 마땅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번역 시험이 부담스럽다면, 감을 익히는 용도로 토익 리딩 섹션이나 단어들을 훑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예람: 저는 원래 면접에 강한 타입인데요, 그 이유는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듣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면접일 4~5일 전에 면접 준비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면접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실전 면접은 대부분 연습했던 예상 질문 안에서 나와 연습한대로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 분들도 1분 자기소개 (한국어, 영어),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등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칸타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면접 마지막에 영어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요새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정치는 어떠한가" 유형의 질문은 절대 아니고, "팀에서 리더와 멤버 중 어느 역할을 선호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형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영어 질문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틀려도 당당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칸타코리아 인턴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최기은: 칸타코리아에서 제 첫 회사생활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인턴 동기들과 좋은 팀원분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근처에 맛집도 많고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ㅎㅎ 저도 인턴 지원할 때 이전 기수분들의 뉴스레터를 읽으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 칸타코리아 인턴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박세은: 근무한 지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아 좋은 조언을 드리긴 어렵지만, 인턴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턴십을 통해 마케팅 직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칸타코리아의 인턴으로서 다른 기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보다 더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업무 스타일과 성향을 파악하며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턴분들께서도 칸타코리아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인턴십을 더욱 더 값진 경험으로 바꾸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예람: 먼저, 미래에 칸타코리아 인턴이 되어있을 분들에게 칸타코리아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금융의 중심,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설렘이 저에게도 느껴지네요! 마케팅도 생소하고 리서치도 생소한데 마케팅 리서치 전문 회사를 다니니 배울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미숙하고 실수를 남발하게 될까 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우린 인턴이니깐 괜찮습니다. 인턴은 원래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니까요! 실수를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 아직 미숙하고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이전 그만 실수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좀 썰네요! 결론은, 칸타코리아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인턴십 인턴의 자질과 인턴 준비 팁

인턴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휴학/졸업하신 분으로, 마케팅 리서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영어 능력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꼼꼼한 분입니다. 특히, 칸타코리아의 인턴 인재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분입니다.

인턴십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한 분들은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 후 Ad-Hoc팀에 배정됩니다. 각 팀의 인턴코치를 따라 마케팅 리서치 업무에 대해 배우고 번역, 데이터 클리닝, 데스크 리서치 등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턴코치와 소속 팀장님이 인턴십 전체 기간을 평가하고, 인턴십 종료 시 최종 평가 이루어집니다. 칸타코리아 인턴이 신입공채에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정식 연구원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서처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적극 지원하여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by 송은재 채용 담당자



칸타코리아 마케팅조사사업부문 인턴의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오전

인턴은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하게 됩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 9시 50분까지 도착해서 자리에 쌓인 먼지를 닦고 그날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에 두 시간동안 집중해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

10시부터 12시까지 업무를 하다 보면 꿀 같은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점심은 팀원 분들과 먹는 경우도 있고, 인턴들끼리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맛집이 많은 더현대서울의 경우에는 줄이 굉장히 길기때문에 웨이팅 앱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이라 너무 오래 대기하지만 않는다면 식사 후 커피까지 사올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오후

인턴 동기들 혹은 팀원 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면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연구원님, 선임님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좌담회에 들어가 노트테이킹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점심 먹은 후라 가끔 졸릴 때도 있지만 바쁘게 업무를 하다 보면 5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6시에 퇴근을 하면 가끔 인턴 동기들과 반개 모임을 갖기도 하고, 패밀리 데이인 금요일에는 4시 30분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퇴근

퇴근길은 퇴근시간 피크와 겹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의도역으로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부터 길게 줄이 늘어져 있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퇴근을 하다 보면 멋진 직장인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해요. 또, 매주 금요일은 패밀리데이로 인턴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4시 반 퇴근하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칼퇴근 후 더현대서울이나 IFC몰, 여의도 한강공원 등에서 금요일을 즐기세요!



작성자: 73기 인턴 김수진 (K-1팀), 임유선 (BAS-4팀)

Q1.

인턴분들 안녕하세요. 인턴 기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본 인터뷰에서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경험한 바를 인턴 시점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선, 각자 팀에서 맡은 업무와 업무를 하며 배운 점을 소개해 주세요.

배유진 : 저는 마케팅조사사업부 P-2팀 인턴으로서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본부는 유통업, 식품업, 전자제품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저는 마케팅 리서치 업무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마케팅 조사와 실제로 경험한 마케팅 조사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조사 업무를 하며 마케팅 조사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분석이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시장을 조사하며 소비자와 시장 반응 하나하나로부터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민 :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조사사업부 마케팅&PR팀 인턴 이지민입니다. 마케팅&PR팀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의 VED(Value Engineering Division) 부서 소속으로, 칸타코리아의 전문성을 알리고, 제품 / 솔루션 / 오피의 고-투-마켓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PR팀의 주요 업무로는 대내외적 월간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 클라이언트 세미나 및 웨비나 주최,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언론 보도자료 관리 등 칸타코리아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터치포인트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고 계시는 인턴 뉴스레터 또한 마케팅&PR팀에서 총괄하여 제작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부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월간 사보와 양정열 대표님의 영상 브리핑이 있는데요, 저는 마케팅&PR팀 인턴으로서 콘텐츠 제작과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최신 소식과 성과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답니다.

권정현 : 안녕하세요! 팀마다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에 차이는 있겠지만, 인턴은 주로 데스크 리서치, 데이터 QC(Quality Check), 광고 verbatim 정리, 링크테스트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제가 J-1팀에서 일하며 가장 많이 경험한 업무는 데이터QC와 링크테스트였습니다. 링크테스트는 설문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포하기 전 설문지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잘못 설정 되어있는 로직은 없는지, 추가해야 할 로직이 있는지부터 정말 사소하게는 오타자가 없는지까지 설문지의 모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길이의 설문은 링크테스트를 두 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었지만, 설문 길이가 길거나 오류가 많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데이터 QC는 설문이 완료된 이후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와 topline 등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설문 응답 결과를 정리한 엑셀 파일과 보고서를 비교하며 숫자가 오류 없이 들어갔는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sig 표시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데이터 QC는 꼼꼼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에게 이 업무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턴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은 아닐지라도, 없어서 안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턴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더라도,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지닐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김예담 : 안녕하세요! 마케팅조사사업부 LINK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김예담입니다. 인턴으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해외 소비자 조사 및 광고 조사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리 및 체크, 클라이언트에게 송출할 PPT 보고서 작업, 소비자 설문지 제작 및 테스트 보조, 광고 리서치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 소비자 조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관련 문서 및 데이터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조사 관련 데이터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해외 소비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방대합니다. 조사의 각 단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로 나타나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만큼, 집중력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업무이죠.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송출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PPT 형태로 조사 결과값을 정리하고, 결과값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PPT 파일에 추가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사의 광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력과 논리력이 중시되는 업무입니다.

둘째, 해외 소비자에게 전송할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문항 순서를 정리합니다. 설문지별로 소비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사와 설문을 꼼꼼히 검토하는 설문지 체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문항이 잘 들어가 있는지, 순서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TV 광고와 관련하여 인사이트를 꾸준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및 글로벌 브랜드들의 광고를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업들의 TV 광고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해당 광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의 업무에 있어서 '분석력' 이 가장 요구되는 동시에, 가장 성장시키고 배울 수 있었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맞은 해석과 인사이트를 도출해 내는 능력, 광고의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필요에 따라 분석하고 활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73기 인턴 권정현 (J-1팀), 김예담 (LINK팀), 배유진 (P-2팀), 이지민 (마케팅&PR팀)

전지적 인턴 시점 Q&A

Q2.

모두들 다른 팀에서 활동하며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셨군요.
그렇다면 근무하면서 느낀 칸타코리아 인턴십만의 장점은 무엇이었나요?

권정현 : 73기 인턴들이 입사한 3월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정점을 기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칸타코리아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5일 중 최대 3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최소한의 인원만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거리두기 규제가 풀린 5월에도 재택근무는 이어졌습니다. 이는 꼭 회사에 나와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대표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칸타코리아는 복장의 규제가 적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청바지, 맨투맨 등 선택할 수 있는 옷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덕분에 하루 중 아침이 가장 바쁜 저는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 시간을 단축시켜 조금이나마 마음 가볍게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담 : 칸타코리아 인턴으로 근무하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연한 재택근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각자 일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팀원분들과 채팅으로 소통하고,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며 원활한 재택근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장점은 자유롭고 편안한 회사 분위기입니다. 우선, 인턴 동기 점심, 인턴 간담회 등 인턴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됩니다. 함께 식사하며 업무와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팀 분위기 역시 제가 느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팀원분들은 인턴까지도 팀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업무의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 주시곤 합니다.

배유진 : 맞아요, 칸타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 문화와 회사 분위기죠! 저희 팀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재택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포용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문화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저희 본부 이사님, 수석님, 선임님, 그리고 연구원님 덕분에 인턴을 하는 동안 즐겁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고, 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본부 사랑합니다!

이지민 : 마지막으로, 칸타코리아 인턴십에서는 단기간 안에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칸타코리아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인턴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칸타코리아 인턴십 한 번이면 타사 인턴십 두 세 개 정도는 해야 접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 수, 업무 종류를 단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칸타에서 뽕 뺏고 갑니다!

Q3.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부터 자유로운 복장 규정까지, 정말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군요. 세 분이나 재택근무를 언급하신 걸 보니 재택 근무가 정말 편하고 좋은가봐요! 이번엔 다시 업무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마케팅 조사 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인턴십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권정현 : 칸타코리아의 인턴은 다양한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만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대기업과 신생기업은 물론,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글로벌 기업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 또한 인턴십 기간 동안 식품, 광고, 전자기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과 다양한 나라의 기업과 일하며 매일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일 상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보면 칸타코리아 인턴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단조로움보다는 새로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주저없이 마케팅 조사 1위 기업 칸타코리아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지민 : 저는 앞서 칸타코리아 인턴십에서는 단기간 안에 다양한 업무를 접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팀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원 한 명 한 명이 하는 업무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업무를 오류 없이 처리하고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야 다음 팀, 다음 사람이 일을 효율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며 빠르고 정확한 멀티태스킹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습니다.

배유진 : 저 역시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산업군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직접 들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조사 기업의 특별한 점은 산업군이나 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직접 조사한 데이터나 리서치 자료 등이 클라이언트 기업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원활히 운영되는 데 토대가 된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예담 : 저희 팀은 전자기기 회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제품과 광고에 관해서는 거의 바삭할 정도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전자기기 회사들이 광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과 인사이트를 요구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전세계 일류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 인턴으로서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조사 기업이 아니면 접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기업과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의 광고 제작에 있어 인턴인 제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름의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추가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칸타코리아 인턴십을 통해 데이터와 자료가 마케팅 프로세스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수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특정 기업이 실행하는 모든 마케팅 전략은 철저한 데이터 축적과 조사,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Q4.

네, 칸타코리아 인턴은 단기간 내 다양한 산업군을 접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턴십 기간 중 근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배유진: 처음 좌담회에 참석한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마케팅 조사를 실제로 행하니 정말 재미있고 특별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좌담회라 다소 익숙하지 않았지만 좌담회가 끝난 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를 진행하며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비자 반응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하며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한 어느 날 오후 팀원 모두가 잠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논의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며 무더운 날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연구원님의 생일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원님의 생일날 케이크를 준비하여 본부 전체가 함께 축하 파티를 하였습니다.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연구원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동안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칸타코리아의 모든 인턴에게는 인턴 코치님이 배정되는데, 저는 입사 첫 날 인턴코치님과 처음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인턴십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인턴코치님이 계셔서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권정현: 저는 저희 본부에서 진행했던 갱서베이 보조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기존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제품을 출시하기 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던 조사였습니다. 사실 조사 일정이 주말에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세션 중간이나 끝난 여유 시간에 팀원분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기 때문에 세션에서 열심히 일한 뒤 여의도 공원에 가서 마음껏 봄을 즐길 수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실제로 조사에 투입되어 눈으로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고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도 한 층 더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지민: 지난 5월 한국에 내방하신 칸타 APAC CEO Wayne Levings 님을 의전한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환영 이벤트와 언론사 인터뷰에 동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인턴으로서 지역 CEO를 직접 만나 뵙고 언론사 CEO 인터뷰 현장을 체험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Wayne님을 처음 만나는 날, 회사 로비에서 기다릴 때 엄청 긴장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서웠는데 제 인사를 따뜻하게 받아 주시고 친근하게 악수를 청하시는 모습에 긴장이 금세 풀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예담: 저는 2022년 미국에서 열린 슈퍼볼 당시 TV로 온에어 되었던 광고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개수가 굉장히 많았고, 광고 하나 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광고 요소들을 점수로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생각보다 광고들이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슈퍼볼 기간에 방송되는 광고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높은 퀄리티의 광고가 등장하곤 합니다. 덕분에 저는 고퀄리티의, 조회수 높은 인기 광고들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만든 광고들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즐겁게 업무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권정현: 칸타코리아는 여의도 한강공원과 도보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쉽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앞서 유진 인턴이 언급한 것처럼, 인턴 동기들끼리도 점심시간에 한강공원으로 점심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13명이 돛자리를 빌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기들과 즐길 시간 덕분에 잠시나마 대학생 새내기로 돌아간 기분이었답니다.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조금 안 되었던 지난 4월 21일, 73기 인턴들 모두 양정열 대표님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인턴분들이 사무실 출근을 했는데,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 출근 스케줄이 달라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과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표님께 직접 인턴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생활,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인턴들 모두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있는 만큼, 대표님께서도 직업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직업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칸타코리아에서의 인턴 생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질문도 많이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인턴 생활 두 달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인턴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대표님과의 Q&A 시간

인턴들이 그동안 칸타코리아나 리서치 직무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대표님께 질문할 수 있는 Q&A 시간도 진행되었는데,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간단히 공유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리서치의 역량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외국어 역량과 논리적인 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총 4가지를 꼽으셨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능력을 배가 되게 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팀 플레이어가 될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들이 취업 준비생으로서 궁금했던 점이나 칸타코리아와 관련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한 달 간의 인턴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 생활을 하며 궁금했던 점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좌담회(FGD)란?

좌담회는 표적집단면접(FGI/FGD, Focus Group Interview/Discussion)의 일종으로 연구대상의 인식, 의견, 믿음, 태도에 관한 조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6~8명의 소비자가 모여 기업의 광고, 제품, 서비스 등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좌담회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 및 구매 결정 요소를 알아보고 제품/서비스의 개선 사항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좌담회의 모더레이터는 참가자들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본인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유 토론 방식으로 좌담회를 이끌어 갑니다.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응답자 전원은 모더레이터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칸타코리아에는 FGD 전용 룸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실게도 거리두기 개편 전 좌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에 FGD 룸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FGD에서 인턴의 역할

1) 노트테이킹

FGD에서 인턴이 담당하는 가장 큰 업무는 노트테이킹, 즉 회의록 작성입니다.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좌담회 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받아 적어야 합니다. 사전 질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더라도, 실제 좌담회에서는 응답자들의 답변 흐름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좌담회의 진행 목적, 각 질문의 의도를 미리 숙지합니다.

2) 클라이언트와의 디브리핑

좌담회가 끝난 후 클라이언트와 함께 좌담회에 대한 피드백과 인사이트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해당 내용 역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노트테이킹 내용 정리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급하게 받아 적었던 노트테이킹은 오타자 및 비문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용을 수정하면서 좌담회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좌담회 활용방법

마케팅 리서치의 최종 목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는 정량 조사에서 수치로 측정되는 자료를 가공한 도표 혹은 그래프와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량적 수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인식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 관련 데이터가 소비자가 생각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좌담회 결과를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야 합니다. 즉, 보고서를 보다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바로 좌담회 노트테이킹입니다. 소비자의 말투가 반영된 인용구를 작성함으로써 보고서에 생생함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작성자: 73기 인턴 정현수 (P-3팀), 정솔 (K-2팀)

KANTAR KOREA WEBINAR

칸타코리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파트너로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칸타코리아가 기획,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인 Kantar Insights Webinar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웨비나를 개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고객과 청중에게 최신 소비자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등 트렌드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칸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애자일한 마케팅리서치, 마케팅리서치 오토메이션 플랫폼 활용사례'와 같이 고객사를 위한 칸타코리아의 탁월한 비즈니스 솔루션 톨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칸타코리아가 제공하는 더 많은 웨비나 자료를 링크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 칸타 펄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VIEW MORE](#)

Kantar Insights Webinar

칸타 신디케이트 '글로벌 이슈 바로미터' 브리핑

엔데믹, 인플레이션 등 최신 이슈에 대한 한국&글로벌 소비자 인식 이해



06.29 WED 3:00 ~ 4:00 PM

Speaker: 칸타코리아 최은희 마케팅조사 사업부문 부대표 겸 최고고객책임자(CCO)

등록하기

|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웨비나에 참여하실 수 있는 Zoom 미팅 링크가 발송됩니다.
| 등록하신 분들에게서는 해당 링크로 녹화본 시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본 초청장 전달을 통한 소개도 환영합니다.



KANTAR

칸타코리아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매주 금요일 패밀리데이로 오후 4시 30분 퇴근
- 팀 워크샵 지원
- 과일 및 빵 등 조식 제공
- 단체 보험 제공(질병/상해)
- 본인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라이프 스테이지별 선물-출산선물 및 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
- 생일휴가 1일 제공
- 장기근속 포상
- 전 직원 복지포인트 제공
- 법인 콘도 제공
- 야근식비와 교통비 실비 지원
- 자율복장
- 상조회 운영
- Employee Assistant Program(직원 멘탈헬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 사내 동호회 활동지원(현재 11개 동호회 활동)
- 직원 칭찬 플랫폼 운영(포인트 선물)
- 헬스 주간(Health Week) 운영

인턴 채용 시기 및 전형과정 소개

칸타코리아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매년 총 4 기수가 입사하게 됩니다. 지원자들 대다수가 대학교 재학생이므로, 봄학기(3월 초~6월 말 근무), 여름방학(7월 초~8월 말 근무), 가을학기(9월 초~12월 말 근무), 겨울방학(1월 초~2월 말 근무) 일정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모집은 입사시기 한달 전에 이루어지니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형은 서류 접수 → 면접&번역테스트 → 최종합격 → 입사순입니다.

[기획]

KANTAR Marketing&PR팀

[글쓰기]

KANTAR 73기 인턴 전체

HR팀 송은재 사원

[디자인]

KANTAR Visual Specialist팀